"행자생활 경험, 나를 돌아보는 계기"

월정사 단기출가 50기 배출

3000여 명 입교해 행자 체험
10%인 300명 출가 이끌어
연중 · 연령별 출가학교로 변모



단기출가 20기 졸업식에서 참가자들은 출가의 의미를 새롭게 느끼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사찰은 불교 신행의 공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속세의 번뇌를 끊고, 잠시나마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머리나 깎고 출가나 할까'란 말은 '농사나 지으며 살까'란 말과 함께 속세의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중들의 말이다. 하지만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없듯이 출가 또한 쉽게 할 수 없다. 이 또한 또 다른 인연이 닿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출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장이 있다. 바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가 7월 23일 50기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 세상에서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 몸으로 태어나서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는 출가학교의 표어처럼 단기출가학교는 진정한 출가의 의미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04년 9월 개설됐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서는 남성은 모두 삭발하며,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삭발한다. 행자과정을 체험하는 일이기에 스님들과 선문답을 나누는 시민선방이나 템플스테이의 연장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예불하고, 5시에 108배와 참선, 6시 30분에 발우공양, 7시 20분에 운력 및 도량 청소, 9시 강의, 11시 20분 점심 공양, 12시 30분 걷기, 13시 30분 강의, 16시 소임별 운력, 17시 20분 저녁 공양, 18시 30분 저녁 예불, 19시 정진, 21시 취침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행자생활을 그대로 가져왔다.

빡빡한 일정에도 개설 당시부터 행자생활을 체험하는 단기출가학교는 인기였다. 접수 10일만에 600명이 신청해 조기마감하기도 했다.

단기출가를 통해 그동안 동경해 오던 출가생활을 경험한 불자들은 13년간 3000명에 달했다. 이중 10%인 300명이 출가했다.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에서 종사하거나 불자로서 봉사로 회향의 삶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50기 동안 출가학교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매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연중 출가학교로 변모했다. 성격도 세분화해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비롯해 가족출가학교, 주부 여성 출가학교, 마음출가학교, 청년 출가학교, 외국인 출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 출가학교도 운영 중이다.

50기 졸업식에서는 새로운 변화 지점이 시사됐다.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0기 행자들에게 '비워낸 후 또 다시 채워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시대 흐름과 사회 변화에 맞춘 단기출가학교의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월정사는 10월 11일부터 1주일간 황혼기 나도 출가학교를 운영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새터민 불교 인재들, 월악산서 소통하다

통일바라밀숲, 7월 18~19일 한벗학교 청소년에 멘토링



통일바라밀숲은 7월18~19일 KDB산업은행의 지원으로 닷돈재 야영장서 새터민 생태나누리 캠프를 진행했다.

남한 사회가 아직 서툰 10대 새터민들에게 대학생 새터민들이 나서 멘토링을 해주는 뜻 깊은 캠프가 진행됐다.

통일바라밀숲(대표 남지심)과 새터민 대안학교 한벗학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7월 18~19일 충북 제천 닷돈재 야영장서 '월악산 생태나누리 캠프'를 실시했다. 이 캠프는 새터민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사회의 정착과 통일인재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

40여명의 참가자들은 △월악산국립공원학습 △캠핑교육 △캠핑용품만들기 △월악산계곡물놀이 △캠핑음식 만들기 △모닥불과함께 낭만토크쇼 △만수계곡 관찰로 트레킹 등을 체험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낭만토크쇼에서는 한벗학교 청소년들의 입시 · 진로 문제를 통일바라밀숲 대학생들이 멘토링 해주기도 했다.

남한 사회서 동떨어진 것 같다는 한 고등학생의 고민에 대학생 참가자는 "밖으로 나와야 한다. '남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고 고민하라. 또래 아이들과 무조건 부딪치며 남한 아이들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서 오래 살아 한국말과 공부가 어렵다는 학생에게는 "북한과 교육과정이 다르기에 공부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럴 땐 책을 많이 읽어라. 나는 고등학교 야자시간 내내 책만 읽었다. 그것이 대학 와서 큰 도움이 됐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벗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김미진 양(가명)은 "다른 새터민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공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많아서 놀랐다"며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꼭 언니, 오빠들처럼 멋진 대학생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통일바라밀숲은 2013년 출범이후 매년 30여명의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은 매 해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캠프를 진행해 새터민 아이들의 단합을 도모해왔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남한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화엄경 등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다.

통일바라밀숲서 불교신도가 됐다는 새터민 대학생 홍재원 군(가명)은 "불교를 알게 되고 매주 법회를 나간다.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과 함께 법회에 참여하고 싶다. 남한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법구경 보왕삼매론이 힘이 됐다"며 보왕삼매론을 줄줄 외웠다.

또 다른 새터민 대학생 최지언 군(가명)은 "기독교는 이미 탈북자를 많이 돕고 있다. 중국으로 '전진 배치'해 선교 · 지원하며 은신도 돕는다"고 밝히며 "반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교단체는 많지 않다. 불교적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진실을 가깝게 볼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를 주최한 남지심 대표는 "통일이 되기 위해, 또 통일 된 이후를 위해 새터민들에게 남한과 불교의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 새터민의 90%는 기독교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남지심 대표는 "기독교 단체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새터민을 돕고 있다. 반면 불교의 새터민 지원은 미미하다.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됐을 때 불교가 설 자리가 없다. 미래 불교인재로 대학생 새터민을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통일바라밀숲은 현재 25명의 대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불교계서 이 일에 관심을 가지면 대학생 108명 모으는 것은 금방일 것"이라며 불교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제천=박진형 수습기자

불교상담개발원 '선 사이코 드라마'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8월 18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개운사 내 불교상담개발원 강의실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 초빙교수 효록 스님을 강사로 여름방학 특강 '선 사이코 드라마'를 개최한다.

사이코 드라마는 즉흥극을 이용하는 하나의 상담기법으로 각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치료를 돕는다.

불교상담개발원 측은 "심리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발성과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연락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8월 31일 불교상담개발원 강의실서 불교상담심리 전문가인 장영수 한국상담심리학회 수퍼바이저를 초청해 면접상담 공개사례 발표회를 연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동국대 국제선센터 선수행자 과정 모집

동국대 국제선센터(센터장 수불)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선수행자 과정을 개강한다. 선수행자 과정은 모두 5가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9월 7일 개강하는 비교선수행실습은 달마 이입사행론, 혈맥론, 천태의 오성론, 신수의 관심론 등 중국 선사상과 인도의 요가수행을 비교 연구하는 강좌로 김택단 교수가 진행한다.

9월 6일에는 현견 스님의 유마경 강의 김홍근 교수의 전심법요 강의도 개강한다. 9월 8일에는 박재용 박사의 '명상과 과학' 강좌가 개강해 마음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로 이끄는 명상의 과학적 근거와 체계를 설명할 예정이다. 9월 7일에는 황수경 박사의 선과 마음치유 실습도 열린다.

이 과정은 11월까지 12주에 걸쳐 열리며 수강료는 28만원이다. 3과목 이상 수강할 시 '간화선 집중수행' 수료증이 발급된다. (02)2260-3891

노덕현 기자

복지종사자, 죽음준비교육 실시

태평1동복지회관서 8월 23일부터 매주 수요일 12주간

태평1동복지회관(관장 박왕호)은 노인관련 보건 · 복지 ·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마무리(Well Bye) - 생(生)과 사(死)의 인생수업'을 주제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8월 23일 오후 4시 개강하는 이번 교육은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죽음의 공포와 불안, 노인자살, 애도, 임종기환자 케어, 호스피스, 상장례 제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 죽음 교육은 특히 노인복지관 등에서 진행해온 노년층 대상 '웰다잉' 교육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의 및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상담과 케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박왕호 관장은 "노인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죽음교육을 받음으로써 노인들에게 죽음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개발시킬 수 있다"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노덕현 기자

생명존중 동화구연 자격증 특강

불교여성개발원, 8월 30일부터 개최

불교여성개발원(원장 노숙령)은 8월 30일부터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강의실에서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동화구연 3급 자격증 과정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조정현 동화구연가와 임정애 건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말하기 표정, 동작의 연기술' '특성있는 동화구연과 창작' '3급 실기 대비 연기 지도와 연습' 등을 지도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그동안 동화구연에 대한 강좌를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해왔으며, 이번 특강은 9월 17일 3급 시험에 대비한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생명존중 강연분야는 다양한 사회 각계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화구연을 비롯한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불자들의 사회참여를 늘릴 수 있다"며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의료,복지,전법 구현의 대표종단 한국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새로운 종단 패러다임 대전환 추진!

- 수행, 전법, 기도 중심 수행 생대계 환경 대전환
- 익숙한 종무행정 관행 결별 ~ 새로운 생각과 행동 실천
- 종단 산하 의료, 복지, 운영 지원 및 산하기관과 유대강화
- 종단사찰 장묘시설 인허가 대행 및 관련행정 역차별 개선
- 전법 의식 능력 향상을 위한 종단차원 승가교육 대학원 상설교육
- 종단 전통 통일가사 및 법계고시를 통한 종풍쇄신 구현



한국불교조계종은 종교활동을 저해하는 사회적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이미 의료,복지,장묘 부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찰의 일자리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생태계 사찰 경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 시각에서 보는 통찰력으로 사찰경제문제 해결능력을 발휘해 일하는 방식도 바꾸어서 한국불교조계종과 함께 제반의 스님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하겠습니다. 스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사)한국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 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이 사찰 존립의 구조적 위기로까지 옮겨진 상황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한국불교 종단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불교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해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종단 종책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노후 건강과 복지문제 특히 의료주거비 등 스님들의 노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종책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소신있게 나갑시다. 그래서 국민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불교조계종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긍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먼 훗날 그 어려운 시절에 한국불교조계종이 해냈다는 사자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과 강호제현의 도반님께 감사드립니다.

불기 2561년 8월 1일 총무원장 운 산 합장

■ 입종서류 : 행장(이력서), 사진(반명함판) 1장, 사찰(내부, 외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 모집기간 : 2017년 7월 1일부터 ~
■ 입종자격 : 종단통일가사 동참자 ※ 특혜 : (공덕 품계 인정)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장운 운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831호 두산위브파빌리온 TEL : 02)720-8270, 02)2198-5022~4, 010-4167-3666 (사무총장 도광)
FAX : 02)720-8271 Http://jogyejong.or.kr E-mail:jonggyo119@hanmail.net

한국불교조계종 종단관련 유관단체 · 사회복지법인 세계불교종단연맹복지재단 / Http://wbof.or.kr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 Http://kntga.or.kr ·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총연합회 / Http://kroa.or.kr · 종교세계신문사 / Http://jworldnews.com